

## 5월 24일 포이에마예수교회 가정예배순서지

<b>예배의 부름</b>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3~24)	<b>인도자</b>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b>찬 양</b>	-----찬송가 452장-----	<b>다함께</b>
<b>기 도</b>	-----	<b>가족중</b>
<b>성경봉독</b>	-----야고보서 1:19~27-----	<b>인도자</b>
<b>말 씬</b>	-----진짜 경건-----	<b>인도자</b>
<b>말씀암송 및 나눔</b>	-----	<b>인도자</b>
<b>합심기도</b>	-----나라와 가정을 위한 기도----- 서로 간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b>다함께</b>
<b>주기도문</b>	-----	<b>다함께</b>

### 찬양 -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QR코드를 스캔하면 위의 찬양이 연주됩니다.)



### 성경봉독 - 야고보서 1장 19~27절

19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20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21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22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4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25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26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7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 진짜 경건 - 2017년 9월 17일 주일예배 설교

(QR코드를 스캔하면 신우인 목사님 설교영상으로 연결됩니다.)



레위기에는 복잡하기 그지없는 제사법들이 끝도 없이 나열됩니다.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등등 제사도 많지만 신분이나 재산 정도에 따라서도 각각 그 제사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1,500년간 행하지 않으면 큰 질책과 징계를 각오해야 했던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구약의 제사가 일순간 효력을 잃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나 기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히 10:10)**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으로 드린 이 제사를 **“한 영원한 속죄제사(The single sacrifice for sins)”(히 10:12)**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복잡한 것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셨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저 편하게 해주시려고?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 제사를 제정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무작정 행하므로 생명과 시간과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탕진하는 것을 막고, 각자의 생명과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곳에 사용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히 10:18)**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제사에 드릴 정성과 비용과 에너지로 중요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3-25)**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그것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입니다.

이 긴 설명을 오늘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천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약 1:27)** ‘진짜 경건’은,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동시에 자신이 세속적인 욕심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고귀한 목숨을 버려 복잡한 구약의 제사를 폐하신 이유는, 우리로 ‘진짜 경건’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가짜 경건’은 어떤 것일까요?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구절은,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입니다. 이 말은 말조심하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경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드레스코스 dreskos”**입니다. 이 말은 **‘드레오마이’**에서 유래하였는데, 그 뜻은 **‘기도문을 중얼거리다’**입니다. **비아냥거림**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겉으로 꾸며낸 ‘헛된 경건’으로,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다’는 것은 주문을 외우듯이 뜻도 모른 채 중언부언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속은 시켜명합니다. 바리새인을 생각하면 쉽게 상상이 됩니다. 곧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헛된 경건’이란, 한 마디로 ‘그래 봤자.’ 아무런 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경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해야 할 일,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약 1:21)**고 말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란, 그저 순하고 착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아나우’**는, **내 뜻을 하나**

님의 뜻에 복종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가르침으로 바꾸는 것, 즉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을, 거울을 보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부자는 청동거울로, 보통 사람들은 꼭 봐야 한다면 대야에 물을 떠놓고 자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즈음 거울과는 달리 정확한 모습을 볼 수가 없으므로 대충 대충 보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잊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여 습관처럼 만들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열심히 행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약 1:25-26)**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간과 생명과 재산까지 탕진한 아들이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무서운 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눈이 빠지게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한걸음에 달려와 돌아온 아들을 덤석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셨습니다. 돌아와서 또 빈둥뭇뭇니까? 그렇다고 내쫓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실망과 걱정은 이만저만 아닐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답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며, 기쁘게 열심히 그 뜻을 행합니다.** 그 자녀를 보시는 아버지가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더 잘하라고 좋은 아이디어도 주십니다. 영감입니다. 필요한 뭐든지 내주십니다. 기회와 재능과 사람과 자원입니다. 그것을 야고보 사도가 간단히 말합니다.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약 1:25)** 야고보 사도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간단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약 1:27)** 이것이 복 받는 비결 중 최고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잠 11:25)** 늘 남을 살리려는 마음을 생활화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어 베풀고도 남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 함께 생각하기

1. 평소에 생각했던 ‘경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2. 진짜 경건한 삶을 위한 온유함,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아버지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3.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진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타인을 살리기 위한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한주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 👉 오늘의 암송구절

야고보서 1장 27절

27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